

프로젝트:**차기 세계 총회 – “CLC 축하, 통합, 쇄신”****No.168, 2017 9 월 원문: 영어**

주님 안의 벗들에게,

1. 세계 상임위를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차기 세계 총회까지 약 10 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CLC 삶에 있어 중요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¹
2. 성경과 전례를 보면 대림, 사순절 등과 같은 “준비기”에 대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차기 세계 총회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준비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총회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살펴보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다시 말해 “시대의 징표와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려 합니다. (CLC 통칙 6 번)
3. 먼저, 우리 CLC 의 통칙 서문에도 나오는 “강생에 대한 관상”에서 성 이냐시오께서 설명하신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성삼위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세상의 상황에 몹시 슬퍼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로 결심하시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당시의 위대한 사명의 대상이자 협력자로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열망하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4. 둘째, 우리는 오늘날 각각 맥락이 있는 수많은 현실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 현실들은 우리 CLC 세계 공동체에도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은 우리 CLC 세계 공동체를 더 깊게 쇄신하고, 삶에서 개인적인 소명들을



¹ 네번째 의장 편지를 보세요. – 2018 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CLC 세계 총회 소집:
<http://bit.ly/Convocation-enPDF>

살아가고, 세상 안에서 사도적인 참여를 강화시키는 씨앗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맥락- 50 주년

5. 첫번째 현실은 CLC 가 1967 년 쇄신 이후로 50 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감사와 축하의 시기이며 이냐시안의 관점에서 보면, 성찰과 평가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통칙 2 번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 통칙을 새기고 각 상황과 시기에 새롭게 통칙이 표현되도록 성령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6. 우리들이 축하하는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지난 50 년간 CLC 가 받아온 바로 그 특별한 은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은총은 특히 정체성, 공동체, 사명, 식별 과정에서 CLC 가 성장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내어 CLC 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 각자의 상황 안에서 살아나가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봅시다.
7. 또한, 이제까지 받아온 은총을 축하하는 시간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정직하게 다시 평가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은총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미래를 보다 의미 있게 식별할 수 있고, 하느님과 동반하며 하느님의 사명 안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맥락 - 교회를 쇄신하시는 교황님

8.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고 실재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회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날 가톨릭 신앙에 있어 새로운 전망과 깊이와 체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여러 성명과 문서 등을 통해 신학, 교회론, 특히 사목 활동에 있어 전반적인 쇄신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쁨과 희망으로 이러한 깊은 쇄신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9. 특히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상 안에서의 협력관계와 보다 밖으로 향하는 복음선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특히 몸담고 있는 가장 끝단의 현장(periphery)으로 뛰어들라고 하십니다. 교황님은 교회로서 우리들이 “야전병원”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교황님은 자비, 기쁨, 포용, 지구를 돌봄,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식별과 회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10.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주제들을 다시 언급하시고² (늘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 그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도 덧붙이시면서, 근본적인 방식으로 평신도들에게 쇠신하라고 또한 요청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은 “교회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 (“신앙감각(sensus fidelium”³))으로써 우리(CLC)는 교회와 세상의 선을 위해 우리가 받은 겸손한 묵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확실하게 식별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맥락 – 오늘날 세상 안에서 평신도가 받고 있는 새로워진 요청

(i) 평신도의 쇠신

11.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갖고 있는 평신도에 대한 시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평신도들 또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함께 나누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새롭게 깨어나라고” 요청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사도직은 당신의 구원과 우정을 온 세상 구석구석,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맡기신 것입니다.
12. 교황님은 특히 “성직주의의 죄”에 대해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를 들어 사제들과 평신도) 쇠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계 제도에 있어 어떤 개혁을 하든지 간에, 이런 변화는 세상 안에서 보다 복음선포자인 전망을 찾기 보다는 자기준거적인(self-referential)교회에 봉사하는 것에 과도하게 매달려 있는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신도로서 우리들의 세상은 가정, 학교, 본당, 정치참여, 직업, 일, 문화 등입니다. 교황님은 우리 모두(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² 예를 들어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Gaudium et Spes)”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Decree on the Apostolate of the Laity)”

³ “교회와 함께 생각하는 규칙(Rules for thinking with the Church)”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352 번부터)

협력하는 봉사의 정신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선교 영역에서 보다 깊이 있고 겸손하게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

13. 평신도로서 우리들이 CLC 평신도 성소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CLC 인 우리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성 이냐시오의 영성수련을 통한 선물과 통찰, 은총들을 특히 풍성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을 지니고, 가능한 한 완전하게 오늘날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을 살아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도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개인적인 회심을 하라는 요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ii) 오늘날 우리 세상

14. 오늘날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여기서 끝도 없이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중매체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포화상태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총체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전쟁과 기아, 대규모 이주, 빈부격차, 가족 붕괴, 환경 파괴 및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무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짚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15. 우리 세계 CLC 홈페이지나 CLC 문서들만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CLC 회원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이런 도전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다행스럽게도 이런 어려움의 대부분을 겪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런 어려움들에 응답해가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레바논 총회 최종 문서도 그렇게 권고합니다.
16. 오늘날 이처럼 엄청난 세상의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CLC 와 이냐시오의 카리즘을 살아가는 평신도로서 스스로 얼마나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평신도 성소가 갖는 중추적인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서 그리스도의 전 지구적인 사명을 위해 온 교회와 함께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카이로스(Kairos: 하느님의 때)”의 순간

17. 위에서 말한 많은 내용들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⁴. 사전적으로 보면 “카이로스”의 순간이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을 진행해 나가는데 특히 알맞고, 가장 핵심적이며, 시의적절하고, 걸 맞는 시간 앞에 서 있는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역동을 보니 우리가 현재 그런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성찰, 통합 및 온전한 참여의 정신으로 이 순간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세계 총회는 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계 총회까지의 여정 – 그리고 두 가지 “움직임(movements)”

18.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놓여 있는 세가지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차기 총회까지 우리의 여정과 체험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로, 총회 개최 알림 편지에서 알려드렸던 세가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 a) 주제 : “CLC, 교회와 세상을 위한 선물”
- b) 성경 구절: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 가서 보아라” (마르코 6:38)”
- c) 은총: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세상 안에서 CLC 카리즘을 살아감에 있어 더 깊어지고 더 통합되기를 열망합니다.”

19. 더불어, 위에 말씀 드린 맥락 안에서, 우리는 이미 두 가지 기본적인 운동을 제안하였습니다(의장 총회 소집 편지를 보십시오). 그 내용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a) **첫번째 움직임-우리의 카리즘을 돌아보고 쇄신된 태도로 살아가기:** CLC 성소에 담긴 은총과, 이 성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많은 은총들을 성찰하고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CLC 카리즘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다 깊게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⁴ 네번째 의장 편지를 보십시오. – 2018 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CLC 세계 총회 소집:
<http://bit.ly/Convocation-enPDF>

우리는 CLC 의 세가지 기둥, 즉 영성과 공동체와 사명이라는 세 축을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 안에서 통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에서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저마다 투신하는 새로운 평신도가 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초대를 가능한 한 전적으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기도와 활동, 회심이라는 과정을 내포합니다.

- b) **두번째 움직임-오늘날 세상 안에서 CLC 카리즘을 살아가기:** 우리는 우리 CLC 카리즘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적으로 세상 안에 가능한 깊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의 정신과 우리 통칙의 정신에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통칙에는 “성령은 ... 우리가 받은 중대한 사명을 알게 하고 이 시대의 요청에 끊임없이 응답하게 한다. ...”(통칙 2 번)고 되어 있습니다.

20.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첫번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음 번 프로젝트 (169 번)에서는 두번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21. **“첫번째 움직임”에 대한 성찰 제안:** 다음 세계 총회로 향하는 우리 여정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a) **우리의 역사:** 세계 차원, 국가 차원, 단위 차원, 개인 차원 등 CLC 의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포함하여, 지난 50 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은총의 체험들을 돌아봅시다. 세계 차원에서 공통된 이해도 몇 가지 있지만, 국가든, 지역이든, 문화든, 기타 다양한 맥락에 따라 우리가 살아오고 받았던 은총들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에서 CLC 가 해온 풍성하고 다양한 활동들과 삶을 관상합니다.
- b) **우리 카리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에서 말씀 드린 성찰을 바탕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응답합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우리는 우리 카리즘을 각자 새롭게 이해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 c) **우리 카리즘을 새롭게 살아가기:** 이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우리 소명과 사명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더 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성찰하는 것이 169 번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2. 우리는 위에 제시한 성찰과 프로젝트 169 번에서 제시할 성찰들이 다음 총회 및 앞으로의 CLC 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들이 앞으로의 여정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세계 총회 준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와 관련한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저희와 나눠주시기를 청합니다. 세계 사무국에 있는 알윈 마칼라라드 사무총장에게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23.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것들에 큰 희망을 갖고 고대하고 있으며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에페소서 3:20)

기도와 행동 안에서 일치하며,

크리스 호건, 고문 & 마우리시오 로페즈, 의장
세계 상임위와 함께, 세계 상임위를 대표하여

PROJECTS:**Our next CLC World Assembly – “CLC celebration, consolidation, renewal”****No.168, September 2017*****Original: English***

Dear friends in the Lord,

1. On behalf of the CLC world Exco, greetings. It is now about 10 months to our next CLC World Assembly and time to prepare ourselves for this great event in CLC life.⁵
2. Our Scriptures and Liturgy are replete with examples of “times of preparation”, e.g. Lent, Advent, and more. We too, are now entering a special time of preparation, as we embark on our journey towards our next CLC World Assembly. In this sense, our Assembly has already begun. So, we stand back, take stock, and look around, i.e. we seek “to make ourselves sensitive to the signs of the times and the movements of the Spirit” (CLC GP 6).
3. Firstly, we recall the image depicted by St Ignatius in his “Contemplation of the Incarnation” echoes of which we encounter in the Preamble of our CLC General Principles. We note the Three Divine Persons looking down on us, lamenting the worldly situation, and deciding to work the redemption of the Human race. We note also God’s great desire to engage intimately with us as both the objects of and collaborators in His Great Mission.
4. Secondly, we find ourselves confronted with a number of today’s contextual realities which we feel will resonate with our CLC world community. These realities, collectively, seem to contain the seeds of a deeper renewal for our CLC world community, of our personal vocations in life and for the strengthening of our apostolic presence in the world.

**The first contextual reality – Our 50-year anniversary**

5. The first reality is the occurrence of the 50-year anniversary of CLC since its renewal in 1967 - a significant milestone and a time for gratitude, celebration and, in the Ignatian sense, a time

⁵ See CLC President’s letter No 4 - Convocation of the CLC World Assembly, Buenos Aires, 2018:
<http://bit.ly/Convocation-enPDF>

of review and evaluation. As encouraged by our own CLC GPs (GP 2), we seek to cooperate with the Holy Spirit, inscribed in our hearts, expressing itself anew in each situation and time.

6. The deep themes for celebration are reflected in the very significant graces CLC has received over its past 50 years. These graces relate especially to CLC growth in identity, community, mission and discernment processes. Let us all take time to reflect on their special significance to us, at all levels of CLC, and as lived out in our own circumstances.
7. In addition, a time of celebration of past blessings is also a good time for an honest reappraisal of how we have been travelling. So, we look back over our graced history that we might more validly discern our future and move forward more surely in the Lord's company and mission.

The second contextual reality – a papacy renewing Church

8. The papacy of Pope Francis is inviting us to a new vision, depth and experience of contemporary Catholicism, calling for a true conversion in the way we, the Church, are present to ourselves and the world. His various papal announcements advocate significant reforms in theology, ecclesiology, and especially, in pastoral practice. We seek with joy and hope to join Pope Francis and the Church in these profound reforms.
9. Especially, we hear Pope Francis as he talks to us about collegiality and a more outward missionary perspective in the world, venturing to the peripheries where we, the laity, are especially present. He calls us, as church, to fulfil a role something like that of a "field hospital", and living the "option for the poor". He talks often of mercy, joy, inclusivity, caring for the earth and personally leading lives of ongoing discernment and conversion.
10. Pope Francis has also put out a renewed call to the laity in a fundamental way, picking up again the themes from Vatican II ⁶ (in spirit, if not always by direct reference) and adding his contemporary perspective. More than ever, we feel called to a time of "thinking with the Church", a "sensus fidelium" ⁷, that we (CLC) may make validly discerned choices according to God's will about our humble part for the good of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third contextual reality – the renewed call of the laity in our world today

(i) Renewal of the laity

11. Of special interest and inspiration to us are Pope Francis's views on the laity. Pope Francis calls for a "new awakening" emphasising how we, the laity, are commissioned by our baptism to also share in the priestly, prophetic and royal office of Christ. After all, our apostolates are

⁶ eg, as in "Gaudium et Spes" and the "Decree on the Apostolate of the Laity"

⁷ "Rules for thinking with the Church"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Para 352 et al.)

assigned by the Lord Himself, to bring His salvation and friendship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and every facet of life.

12. The Pope has particularly strong words for the “sin of clericalism” and our collective (ie clerical and lay) need for reform. Whatever reforms are planned for the church hierarchy, they apply equally to us laity who may be overly complicit in a service to a self-referential church rather than engaging in a more missionary outlook in the world. Our world as laity is that of families, schools, parishes, political involvement, professions, work, culture and more. The Pope’s call to us all (i.e. priests, religious and laity) is to engage more deeply and humbly in a spirit of collaborative service in our respective vocations and missionary fields.
13. How do we as laity live a new appreciation of our CLC lay vocations? As CLC people, we are particularly blessed with the gifts, insights and graces of the ever-relevant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With these gifts, we feel equipped and prepared in a particular way to respond to Pope Francis’ challenge to live, as fully as we can, the mission of the laity in the world today, aware that, along the way, we will encounter a call to an ever-deepening personal conversion.

(ii) Our world today

14. There is little need to cite here the endless litany of the woes of the world. Our media is saturated with it. Suffice it to say that it is unlikely that, ever before, have we been collectively confronted with issues of war, starvation, mass migration, polarisation of wealth, the fracturing of family, a disregard for the environment and the denial of basic human rights, as we are now.
15. It only takes a glance through our CLC global websites and literature to appreciate how many of our CLC members are living with these trials in their own daily lives. While some of us are fortunate to live largely free of many of these difficulties, we are all, nevertheless, called to address them according to our Faith - and as our Lebanon Mandate recommends.
16. How can we respond to these great needs of our world? Once again, we remind ourselves how well placed we are as lay people, living a CLC/Ignatian charism, to take the message of Christ and His mission to all parts of the world. We seek to cooperate to the fullest with this new awakening of the central place and role of the lay vocation, and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the full Church for Christ’s global mission.

A “Kairos” moment

17. These above considerations collectively suggested that we are living a “Kairos” moment in time⁸. Dictionary definitions suggest, a “Kairos” moment is when we are being confronted

⁸ See CLC President’s letter No 4 - Convocation of the CLC World Assembly, Buenos Aires, 2018:
<http://bit.ly/Convocation-enPDF>

with a time that is especially right, critical, opportune and proper to take a deliberate course of action to achieve a desirable end. The circumstances and dynamics of our times seem to suggest that we are present to such a “moment” now. We therefore seek to respond to this moment in a spirit of review, consolidation, and the fullest engagement, both personally and collectively as a global community. Our coming World Assembly presents us with a special opportunity to do this.

The journey to our CLC World Assembly – and two “movements”

18. Above, we have described three broad contextual realities. Now, we also re-present as a reminder, and as introduced in our Convocation letter, three beacons that we hope will help illuminate our journey to and experience of our next World Assembly:

- a) **The Theme:** “CLC, a gift for the Church and the World.”
- b) **The Scripture text:** “How many loaves have you?... Go and see” (Mk 6:38)”
- c) **The Grace:** “We desire greater depth and integration in the living out of our CLC charism in the world today.”

19. In addition, and in the context of the above, we have also already proposed two basic movements (see Convocation letter) which we now also re-present here:

- a) **1st Movement – Review and renewal in living of our CLC Charism:** Reflecting on and reviewing the many graces received through and inherent in our CLC vocations, we seek a greater depth and integration of our way of life according to our CLC Charism, i.e. we seek an integration in our personal and communal living of the three pillars of CLC, namely, the pillars of spirituality, community and mission. We seek to live personally, as fully as we can, Pope Francis’ invitation to a new lay awakening and personal commitment to Christ’s mission in our everyday lives - and the implied process of ongoing prayer, action and conversion.
- b) **2nd Movement – Living our CLC Charism in the world today:** We seek the fullest depth of engagement in the world, personally and collectively, according to our CLC Charism and appropriate to our life circumstances. In doing so, we respond to the prompts of Pope Francis, the spirit of Vatican II and our own GPs, that remind us that “The Spirit ... challenges us to see our serious responsibilities and to seek constantly the answers to the needs of our times ...” (GP 2).

20. In this issue of Projects, we will amplify a little on the first movement. In the next issue of Projects (Projects 169), we will amplify on the second movement.

21. **A suggestion for reflection on the “first movement”:** As part of our journey to our next CLC World Assembly, we consider:

a) Our history: Let us review our experience of the graces of our 50-year history including as experienced at the various levels of CLC, i.e. at the global, national, small group and personal levels. Whilst we share some common perceptions at a global level, there could be considerable variations at the other levels as graces are received and lived according to context, be it national, local, cultural, or whatever. In this way, we contemplate the rich diversity of CLC life and action around the world.

b) Renewed appreciation of our Charism: Informed by the above reflections, we now respond to the question that Christ has directed to us: “How many loaves have you? Go and see”. We seek the grace of renewed personal appreciation of our Charism.

c) Renewed living of our charism: Now, how can we personally live our vocations and mission in our daily lives more deeply? (Reflection here is a prelude to Projects 169)

22. We hope that the above reflections, and those of Projects 169, will help prepare us for our next World Assembly and any further discernments about CLC directions. We urge your fullest engagement in the journey ahead. World Assembly preparations are continuing. So, if you have any thoughts or inspirations, we would be very happy to hear from you. Please send comments back to our Executive Secretary, Alwin Macalalad⁹ by 30th November 2017.

23. We look forward with great hope to what lies ahead for us and take inspiration from the words of St Paul: “Glory be to Him whose power, working in us, can do infinitely more than we can ask or imagine” (Ephesians 3:20).

United in prayer and action,

Chris Hogan, Consultor & Mauricio Lopez, President
With and on behalf of CLC W-Executive Council

⁹ exsec@cvx-clc.net